

MU:A

무 아 인 테 리 어 매 거 진

VOL. 02

2026 · GUIDE

PRACTICAL GUIDE 2026

리모델링, 시작하기 전에.

예산 · 공간 · 자재 · 후회 없는 준비까지

BUDGET · 평형별 예산 | SPACE · 공간별 솔루션 | CHECK · 후회 없는 체크리스트

목 차

리모델링, 시작하기 전에 — 무아의 실전 가이드

01	여는 글 — 시작하는 당신에게 Editor's Letter	p. 03
02	평형별 리모델링 예산 가이드 Budget Guide	p. 04
03	완성 사례 & 디자인 포인트 Case Study	p. 06
04	공간별 실전 솔루션 Space Solutions	p. 08
05	자재 고르는 법 · 미니 도감 Materials	p. 09
06	공정 & 기간 타임라인 Process	p. 10
07	후회 없는 체크리스트 · 하자·A/S Checklist	p. 11
08	고객 이야기 · 스타일 진단 Stories & Style	p. 13
09	2026 실속 트렌드 · 맺음말 Trend & Contact	p. 15

“좋은 리모델링은,
좋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리모델링은, 좋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설렘과 걱정 사이 — 준비가 절반입니다

리모델링을 결심한 분들이 저를 처음 찾아올 때, 표정은 대개 비슷합니다. 설렘 반, 걱정 반. “예산은 얼마나 잡아야 할까요?”, “어디부터 손대야 하죠?”, “업체는 어떻게 골라요?” — 묻고 싶은 건 많은데, 정보는 흩어져 있고 저마다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호를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사진보다,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았으면 하는 것들을 담았습니다. 평형별 예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공간마다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 자재는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지,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숫자는 예시일 뿐, 정답은 당신의 집에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이 정도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큰 그림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예산과 설계는 언제나 현장을 직접 재고, 당신의 하루를 들은 뒤에 시작됩니다.

무아가 바라는 것은 계약을 서두르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로 첫 삽을 뜨는 일입니다. 이 한 권이 그 준비의 절반을 덜어드리길 바랍니다.

무아인테리어 대표 · 배성미 드림

평형별 리모델링 예산, 어떻게 잡을까

리모델링 예산은 “평수 × 얼마”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재 등급, 공사 범위(부분/올수리), 집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액보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돈이 어디로 나뉘어 가는가”입니다. 아래 숫자는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아파트 올수리를 가정한 예시 범위이며, 실제 금액은 반드시 현장 실측 후 결정됩니다.

24평형

전용 59㎡

3,000~4,500만원

예시 범위 · 부가세 별도

2~3인 · 부분보다 올수리가 효율적인 구간

34평형

전용 84㎡

4,500~6,500만원

예시 범위 · 부가세 별도

국민평형 · 가장 문의가 많은 구간

44평형+

전용 101㎡~

6,500~9,000만원

예시 범위 · 부가세 별도

대형 · 자재 등급에 따라 편차 큼

※ 예시 안내 위 금액은 2026년 아파트 올수리(자재 중급)를 가정한 예시 범위입니다. 부분 시공·자재 등급·집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견적은 반드시 현장 실측 후 산출됩니다. 무아 견적서 양식으로 항목별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예산은 총액보다 “어디에 나뉘어 가는가”를 먼저 봅니다 — 서초

공정별로 예산은 이렇게 나뉩니다

울수리 기준 대략적인 비중 예시입니다. 집 상태에 따라 욕실·샷시 비중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주방·수납 가구		22%
아일랜드·수납장·불박이. 만족도 체감 1위, 우선 투자 구간.		
욕실(타일·설비·도기)		14%
방수·배관까지 손대면 상승. 하자 리스크 커 시공력 중요.		
바닥·도배·도장		16%
면적 전체라 등급 선택이 총액을 좌우.		
샷시·창호		12%
단열·결로와 직결. 오래된 집일수록 우선순위 상승.		
목공·전기·조명		18%
물당·가벽·매립 조명 등 완성도의 뼈대.		
필름·도어·잡자재		10%
분위기를 바꾸는 가성비 구간.		
철거·설비·폐기물		8%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드는 기초 비용.		

여기엔 투자하세요

- 매일 만지는 것 — 주방 상판, 도어 손잡이, 수전은 한 단계 좋은 걸로.
- 뜯으면 다시 못 여는 것 — 방수, 배관, 단열은 아끼지 마세요.
- 오래 보는 큰 면 — 바닥과 벽 톤은 유행보다 오래 편안한 쪽으로.

여기선 아껴도 됩니다

- 조명·소품·가구는 입주 후 단계적으로 채워도 됩니다.
- 멀쩡한 샷시·현관문은 필름·도색으로 살리면 비용이 크게 줄입니다.
- 전체를 다 바꾸기보다, 동선에 걸리는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서초 · 월넛과 테라코타



“취향이 분명한 부부를 위한, 깊고 따뜻한 집.”

01

집은 우드로 중심을 잡다

거실 전체를 월넛 톤으로 둘러 안정감을 만들고, 테라코타 가족 한 점으로 온도를 올렸습니다.

02

오픈 주방으로 동선을 잇다

벽을 덜어 주방과 라운지를 하나로 — 요리하는 사람이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03

조명으로 저녁을 설계하다

층층의 간접조명으로 밤이 가장 아름다운 집을 만들었습니다.



경성큰마을 · 담백한 미니멀



“덜어내기로 완성한, 오래 편안한 집.”

01

무몰딩·히든으로 면을 정리하다

손잡이와 몰딩을 지워 벽을 매끈하게 — 같은 평수가 넓어 보이는 첫 번째 이유.



02

넉넉한 히든 수납

생활의 흔적을 벽 안으로 감춰, 정돈이 짝아지는 집.



03

워밍 뉴트럴로 톤을 맞추다

채도를 낮춘 뉴트럴로 계절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게.

공간마다, 먼저 챙겨야 할 것

방마다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무아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강조하는 핵심만 짚었습니다.

KITCHEN

주방

동선(냉장고-개수대-화구)이 삼각형을 이루면 요리가 편해집니다. 상판은 매일 닿는 곳이라 한 단계 좋은 소재를 권합니다.

BATH

욕실

보이는 타일보다 안 보이는 방수·구배가 먼저입니다. 대형 타일로 줄눈을 줄이면 넓고 관리가 쉬워집니다.

LIVING

거실

큰 창이 자연광을 가리지 마세요. 전체등 대신 간접·포인트 조명으로 나누면 저녁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STORAGE

수납

자주 쓰는 것은 손 닿는 곳, 계절 물건은 깊이. 팬트리·현관 수납을 넉넉히 잡으면 집 전체가 정돈됩니다.

ENTRANCE

현관·드레스룸

첫인상과 마지막 인상을 만드는 곳. 중문으로 단열·먼지를 잡고, 드레스룸은 옷 길이에 맞춰 단을 나눕니다.

BALCONY

베란다 확장

확장은 단열·결로 대책이 핵심입니다. 확장하지 않고 홈카페·정원으로 살리는 선택지도 좋습니다.

자재, 이 기준으로 고르세요

브랜드보다 "우리 집 생활"에 맞는 기준이 먼저입니다. 대표 자재의 고르는 눈을 담았습니다.

FLOORING

바닥재

강마루 · 강화마루 · 원목마루

생활 스크래치·습기에 강한 건 강마루. 발밑 질감과 세월감은 원목. 밝은 오크는 넓어 보이고, 짙은 톤은 아늑합니다.

TILE

타일

포세린 · 폴리싱 · 무광

욕실·주방은 물때 적은 무광 포세린이 무난. 600각 이상 대형은 줄눈이 줄어 넓고 고급스럽습니다.

DOOR

도어·손잡이

ABS · 멤브레인 · 무손잡이

무물딩·히든도어는 벽과 일체감을 줍니다. 손잡이 하나의 마감이 집의 인상을 크게 바꿉니다.

LIGHTING

조명

매입 · 레일 · 펜던트 · 간접

색온도 3000K 안팎의 전구색이 집을 포근하게. 거실 간접 + 주방 작업등 + 식탁 펜던트로 층을 나누세요.



같은 공간도 자재의 결이 온도를 바꿉니다

상담부터 입주까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전체 그림을 알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이 이뤄지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01	상담·현장 실측 집 상태와 원하는 그림을 맞춥니다. 예산의 큰 틀도 이때.	1~2일
02	설계·자재 선정·견적 도면과 자재를 함께 고르고, 실측 기반 정식 견적을 냅니다.	1~2주
03	계약·일정 확정 공정표·자재 리스트·대금 일정까지 문서로 명확히.	—
04	철거·설비·전기 보이지 않는 기초. 방수·배관·배선을 바로잡습니다.	3~5일
05	목공·타일·샷시 공간의 뼈대를 세우는 핵심 구간.	1~2주
06	도배·도장·바닥·필름 면을 입히고 톤을 맞춥니다.	4~6일
07	가구·조명·준공 청소 설치와 마감, 그리고 첫 점검.	3~5일
08	입주 점검·A/S 함께 확인하고, 이후를 약속합니다.	상시

※ 기간 안내 34평형 을수리 기준 대략 4~6주. 공사 범위·자재 수급·집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일정은 계약 시 공정표로 확정합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것만은 확인

인테리어의 만족도는 "디자인"보다 "준비와 소통"에서 갑니다. 계약 전, 시공 중 꼭 짚어야 할 것들.

계약 전 확인

- ✓ 견적서에 자재의 브랜드·모델·수량이 적혀 있는가
- ✓ 공정표와 대금 지급 일정이 문서로 있는가
- ✓ 추가 비용이 생기는 조건이 명확한가
- ✓ A/S 범위와 기간이 계약서에 있는가

업체 고르는 눈

- ✓ 실제 시공 사례(사진 아닌 현장)를 보여줄 수 있는가
- ✓ 사업자등록·연락처·주소가 분명한가
- ✓ 지나치게 싼 견적은 "무엇이 빠졌는지"를 확인
- ✓ 소통이 잘 되는가 — 공사 내내 대화할 사람입니다

시공 중 챙기기

- ✓ 철거 후 숨은 하자(누수·곰팡이)는 바로 공유·기록
- ✓ 자재 입고 시 색·모델을 실물로 확인
- ✓ 전기·조명 위치는 가구 배치 상상하며 미리
- ✓ 변경 사항은 구두 말고 문자·서면으로

“공사가 끝나는 날이, 관계가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하자와 A/S, 무아가 지키는 약속

정직한 견적

실측 후 산출하고, 추가가 필요하면 먼저 알리고 동의를 구합니다.

꼼꼼한 마감

눈에 안 보이는 방수·단열까지 원칙대로.

표준계약서·A/S 보증서 등 서식은 무아 서류세트로 제공됩니다.

공정 공유

진행 상황을 사진과 함께 공유해, 궁금해하지 않게 합니다.

책임 A/S

입주 후 발생하는 하자는 보증 기간 안에서 책임집니다.

세 가족의 이야기

무아가 자주 만나는 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반복되는 고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신혼 부부 · 24평

“둘만의 취향을 담고 싶은데 예산은 빠듯해요.”

무아의 제안 — 꼭 필요한 주방·조명·톤에 집중하고, 가구·소품은 입주 후 채우기로. 밝은 오크 + 웜 화이트로 작은 집을 넓게.

아이 있는 집 · 34평

“관리 쉽고 안전했으면. 수납이 늘 부족해요.”

무아의 제안 — 모서리 최소화·미끄럼 적은 바닥, 팬트리와 현관 수납을 넉넉히. 아이 동선에 걸리는 가벽을 정리.

노부모와 함께 · 44평

“오래 편하게, 안전하게 지내셨으면 해요.”

무아의 제안 — 문턱 제거·욕실 안전바·따뜻한 바닥, 은은한 조명. 화려함보다 매일의 편안함을 우선.

“같은 집은 없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맞춰 다시 그립니다.”

당신에게 가까운 결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질문에 답해보세요.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결이 보입니다. (VOL.01 「스무 가지 방향」과
이어집니다.)

Q1. 집에서 가장 원하는 느낌은?

A

따뜻하고 포근한

B

차분하고 미니멀한

C

개성 있고 무드 있는

Q2. 좋아하는 색의 온도는?

A

크림·베이지·우드

B

화이트·그레이

C

답그린·차콜·브라운

Q3. 저녁의 우리 집은?

A

가족이 모이는 밝은 거실

B

조용히 쉬는 담백한 공간

C

조명이 드라마가 되는 무드

가장 많이 고른 답으로 보는 결

주로 첫 번째

웜 미니멀 · 코지 노르딕 ·
내추럴 우드

따뜻한 뉴트럴과 원목의 온기.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결.

주로 두 번째

모노톤 미니멀 · 클린 화이트 ·
재팬디

덜어내어 넓고 담백하게. 가장 조용하지만
세련된 선택.

주로 세 번째

다크 무디 · 콰이어트 럭셔리 ·
뉴트로

짙은 톤과 층층의 조명. 저녁이 가장 아름다운
집.

더 정확한 진단은 현장에서. 무아가 당신의 하루와 취향을 듣고, VOL.01 「스무 가지 방향」 중 가장 어울리는 결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상담 문의 010-9447-7622 · @muadesign2025

큰돈 안 들고 2026을 담는 법

큰돈 들이지 않고도 2026년의 감도를 담는 법. 무아가 추천하는 실속 포인트.

01 위밍 뉴트럴 벽

전체 도장·도배 톤만 웜 뉴트럴로 바뀌도 집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02 무물당 포인트

전체가 어렵다면 거실 한 면만 무물당·히든으로 — 가성비 좋은 호텔 감성.

03 레이어드 조명

전체등을 끄고 간접·펜던트를 더하는 것만으로 저녁이 바뀝니다.

04 곡선 한 스푼

아치 거울·라운드 소파 하나로 각진 공간이 부드러워집니다.

05 플랜테리어

초록 몇 점과 자연광으로 생기를, 가장 저렴한 인테리어.



작은 변화가 집의 온도를 바꿉니다 — 경성

MU:A
INTERIOR

START WITH MU:A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무아와 시작하세요.

대표 배성미

전화 010-9447-7622

이메일 bsm619@naver.com

홈페이지 www.ttasum.com

인스타 @muadesign2025

사업자 404-10-28650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43번길 43-5, 1층 104호(중리동)

공간을 비우고, 삶을 채우다